

지역 매 아 리

김제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써클 캠페인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매년 9월 첫째 주(9.1~9.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 써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레드 써클 캠페인은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건강한 혈관 관리를 위해 자기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른 건강수칙을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김제시보건소에서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울림줄망 지평선 시네마 영화 상영 전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 영상 송출을 시작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건강홍보를 전개하며 시청 종합민원실, 경찰서 및 평생학습관 등 찾아가는 이동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김제 장애인에는 김제축협 앞 건강부스 운영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사 및 건강상담을 실시해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체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근길을 이용한 레드써클 가두 캠페인은 3040세대 직장인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금구분관

9월 독서의 달 풍성한 행사 운영

김제시립도서관 금구분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독(讀)독(讀)독(讀) 책이 노크하네요' 슬로건 하에 시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를 생활화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한다. 세부 행사로는 ▲도서관은 책놀이터(책읽고 샌드위치 만들기) ▲독서토론 및 글쓰기 지도▲모자이크 티스푼만들기 ▲'소가 된 개오름쟁이' 빛 그림자 공연 ▲영화 '주먹왕 람보', '코코' 2편 상영▲추천도서 목록 배부 ▲나눠요! 기증도서·과월호 간행물 무료 배부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원화전 시회 ▲1일 도서관 현장학습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독서의 달 행사에 시민들이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책의 소중함을 알고 독서하는 생활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독서토론 및 글쓰기는 전문 강사의 지도로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와서 같이 토론과 글쓰기 강의를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축제 글로벌화 신뢰 향상

박준배 김제시장, 러시아연방대사관에 감사장 받아 러시아 데이 10월 5일 러시아 기념식 공연 예정

박준배 김제시장은 최근 지평선축제 글로벌화에 따른 노력을 인정받아 주한러시아대사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평선축제를 통한 러시아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에 대한 노력으로 러시아에 대한 관심도와 신뢰도가 향상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년 연속 글로벌 육성축제, 대한민국 대표 5대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글로벌 행사로는 글로벌 페스티벌, 글로벌 이슈메이킹 행사, 베틀 수확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준비했다.

특히 글로벌 페스티벌 중 러시아 데이는 10월 5일에 러시아 기념식을 하고 러시아의 눈을 땔 수 없는 민속공연과 아름다운 현대무용 등 화려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체험과 베틀제 전설 쌍룡놀이와 풍년기원입식 줄다리기 등 다양한 공연도 준

비하여 양국 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주한 러시아대사관으로부터 지평선축제 글로벌화를 통한 러시아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에 대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러시아와 문화 교류는 물론 지평선축제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글로벌축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주 행사장인 베틀제에서 오감을 만족하는 110여가지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평선축제를 통한 러시아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에 대한 노력으로 박준배 김제시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완주군, 모두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추진

먹거리정책 포럼 추진... 완주군 푸드플랜 방향·과제 제시

완주군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완주군은 지난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농가, 관련단체, 학부모 등 1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현 정부의 혁신 선도과제로 선정 된 푸드플랜의 정책방향과 향후 전망, 완주군 푸드플랜의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선정을 위해

열렸다. 참여자들은 완주군 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과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운병선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농민의 시대 푸드플랜으로 맞이하다'로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 나영삼 지역파트너플러스 본부장이 완주푸드플랜 정책완성을 위한 방안, 서용진 한국지역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완주군 신활력플러스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나인지 서기관을 포함한 패널토론자 7인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재열 경제산업국장은 "얼굴 있는 먹거리 생산과 이에 따른 소비를 위해 로컬푸드를 성공시킨 완주군이 이제 푸드플랜 추진으로 완주군민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허전 부시장, 지평선축제장 현장점검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0일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 사전 준비태세 점검 및 완벽한 축제장 조성을 위하여 주행사장인 베틀제 주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허전 부시장은 베틀제 입구에서부터 한옥장터, 상설

체험장, 베틀제방, 쌍룡광장, 중앙광장 등 축제장 전반을 돌아보며 분야별 준비사항, 보완할 점 등을 살펴보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보완 조치토록 지시했다.

특히 주 무대가 될 쌍룡 앞 무대와

초가부스 등 임시 시설물, 행사장 공간배치, 관광객 관람동선 등 축제장 안전성 점검에 중점을 두었고, 안내 표지판 현행화 및 관광객 물품 보관함 설치 등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시하며 관광객 입장에서 완벽한 축제장 조성에 대하여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딸기정식 시기인 8월 하순부터 9월 10일까지 검경 서비스를 실시한다.

'딸기 꽃눈분화 검경 서비스' 실시

완주군농기센터, 9월 10일까지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가 딸기정식 시기를 맞아 꽃눈분화 검경 서비스를 실시한다. 완주군은 딸기정식 시기인 8월 하순부터 9월 10일까지 검경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특히, 딸기주산지인 삼례지역은(삼례읍사무소) 9월 4일, 찾아가는 위민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딸기가격은 수확초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가 본격적인 수확철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로 농가들은 정식시기보다 다소 일찍 심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칫 꽃눈이 미분화된 묘를 심을 경우 영양생장으로 오하러 수확이 한 달 이상 늦어지는 피해가 발생돼 정식 전 꽃눈분화 확인은 안정적인 딸기수확을 위해 필수다.

완주군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서 딸기묘를 가져오면 현미경으로 검

사를 실시, 꽃눈분화 여부를 확인해 주고, 분화진행 정도에 따라 정식시기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딸기의 꽃눈분화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며, 현미경을 활용해 생장점이 꽃눈으로 형태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올해는 한여름 날씨가 전년도에 비해 무덥지 않았고 8월 중순이후 야간온도가 크게 떨어져 많은 농가들이 정식날짜를 예년보다 서두르고 있지만, 딸기묘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꽃눈분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꽃눈분화 완료여부를 확인 후 정식하는 것은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우리지역 축산배 정식시기인 9월10일을 전후해 심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읍면동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19개 읍면동 인적안전망 4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읍면동 인적안전망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의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연계하면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읍면동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읍면동 인적안전망(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원, 명예사회복지공무

원) 및 복지담당 공무원 포함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삼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이경은 강사로 부터 '민간협력기구로서의 인적안전망 역할' 과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지역내 복지문제 해결강화를 위한 역할분담 강의를 듣는 유익한 시간이였다.

구명석 주민복지과장은 "읍면동 지역사회에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봉사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활발한 이웃사랑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

